

누가복음-사도행전의 φόβος(‘두려움’/‘무서움’)에 대한 이해와 번역

정창욱*

1. 서론

신약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명사인 φόβος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해 준다: 놀람, 위협, 공포/무서움(terror), 경계, 경외/두려움(reverence), 존경(respect).¹⁾ 이 가운데 주로 사용되는 의미는 ‘공포/무서움’과 ‘경외/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념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 우선 이 단어들의 한글 의미부터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한글 ‘경외’는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공포/무서움과는 어떻게 다른가?²⁾ ‘경외’를 국어사전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으로 뜻을 풀어준다.³⁾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 겁에 질려 떠는 공포와는 다르다. 그러면 ‘무서움’과 ‘두려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두 단어의 의미를 국어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다’와 관련있는데, ‘꺼리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짐’ 혹은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함’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공포심의 개념도 있으나 ‘경외’와 유사한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이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awe’ 또는 ‘fear’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무서움’과는 다르다.⁴⁾ ‘무서움’은 ‘무서워하다’와 ‘무섭다’와 관련

* Vrije Universiteit Amsterdam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총신대학교 신약신학 교수. cwjung21@gmail.com.

1) BDAG에 따르면, 이 명사는 기본적으로 ‘위협’을 의미하며 위협과 관련된 반응으로서 공포를 가리킨다. 더 나아가, 이런 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무서움, 경고, 놀람의 의미까지 전달하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경외/외경’을, 인간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현해 주는 단어로 설명한다. BDAG, 1062를 참조하라. 이와 같은 이해는 리델과 스코트(H. G. Liddell & R. Scott)의 고전헬리어 사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을 ‘panic fear’로 제시한다. H. G. Liddell & R. Scott,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1843; 9th 1958), 1947.

2) 본 논문의 한글 단어에 대한 정의는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 근거한 것이다. 이 사전은 웹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3) 이 사전에 따르면, 경외와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 말로 ‘외경’이나 ‘존외’를 들 수 있다.

이 있으며, 이것은 사전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꺼려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겁을 냄’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영어로는 ‘terror’, ‘being terrified/frightened’로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에 근거하여 둘 사이의 차이를 엄밀하게 구별해 보자면 ‘두려워하다’는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공경과 어려움의 감정이 있을 때 사용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그런 감정 없이 겁을 내고 꺼리는 모습을 그려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로의 의미를 구별하기 위하여 ‘무서움’은 ‘공포’로 ‘두려움’은 ‘경외’로 각각 설명해 볼 수 있다.⁵⁾

앞서 설명한 대로, 헬라이어 명사 φόβος는 이렇게 ‘무서움’ 혹은 ‘두려움’이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명사가 문맥에 따라 전달해 주고 있는 그 의미를 한글 성경은 올바르게 이해하여 번역하고 있는가? 이 같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되, 모든 신약성경을 살펴보기보다는 누가복음-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논의의 해 나가하고자 한다. 빈도수로 보자면 신약에서 φόβος는 47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사도행전에 12번 나타난다(눅 7번, 행 5번).⁶⁾ 특히 이 명사가 다른 세 개의 복음서 전체에서 불과 7번 쓰인 반면에 누가복음에만 7번 등장한다. 게다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다른 시대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동일한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 곧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부활 후의 배경을 각각 가지고 있어서 보다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사용되기에 그런 용례들을 비교 연구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φόβος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한 그에 따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를 연

4) 영어 단어 ‘fear’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각주 10번을 참조하라.

5) ‘두렵다’에 대한 설명은 국어사전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무엇이) 두렵고’의 ‘두렵고’는 형용사 ‘두렵다’의 활용형으로,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고/마음에 꺼리거나 염려스럽고”라는 뜻을 나타내고, ‘(무엇을) 두려워하고’의 ‘두려워하고’는 동사 ‘두려워하다’의 활용형으로,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고/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하고”라는 뜻을 나타낸다.

<참고> ‘두렵다’, ‘두려워하다’의 용례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앞날이 두렵다.

그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버릇없이 자란 아이들이 어른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6) 누가복음-사도행전에서 ‘두려움’에 해당하는 ‘φόβος’ (주격)이 많이 사용된다: φόβος- 신약 전체 12번 중 7번 (눅 3번, 행 4번, 다른 복음서에는 없음; 롬 2번, 요일 2번, 계 1번); φοβου- 9번 중 2번 (눅 2번, 마 3번, 막 1번.); φόβω (Luk 8:37, BNT) 10번 중 2번 (눅 1번, 행 1번, 다른 복음서들에는 없음) φοβου- 15번 중 1번 (눅 1번, 막 1번; 요한복음에 3번 쓰이는데 모두 ‘두려움 때문에’란 의미로 διά와 함께 사용되며, 나머지는 바울서신 6번, 다른 서신 2번, 계시록 2번). 이상과 같은 통계치를 나타낸다. 참조, 동사형의 명령법 φοβου는 신약에 13번 쓰이는데 그 중에 7번이 누가복음-사도행전에 등장한다.

구하고자 한다.⁷⁾

2.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세 가지 사건 속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 2장에서 이 명사는 세 번 등장한다.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야의 탄생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면서 누가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의미하는 명사 φόβος를 사용한다. 이 명사의 신약과 누가복음에서의 빈도수를 생각할 때 1, 2장에 세 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명사는 세 곳의 문맥에서 각각 어떠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가?

2.1. 세례 요한의 잉태 고지(눅 1:12)

요한의 잉태와 출생과 관련하여,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사가랴가 보인 반응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φόβος를 사용한다:

καὶ ἐταράχθη Ζαχαρίας ἰδὼν καὶ φόβος ἐπέπεσεν ἐπ’ αὐτόν.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개역개정』)

이 구절의 뒷부분을 『개역』과 『개역개정』은 ‘무서워했다’로 번역하는 반면에, 나머지 네 개의 한글 역본 곧 『표준』, 『새번역』, 『공동』, 『공동개정』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로 번역한다. 이렇게 무서워/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는 13절에서 사가랴에게 ‘무서워/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이 때 φόβος의 동사형이 사용된다. 이것을 『개역』과 『개역개정』은 ‘무서워하지 말라’로 번역하고 나머지 네 개의 역본은 ‘두려워하지 말라’로 표현한다. 이것은 바로 앞 구절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12절에서 사용된 명사의 번역을 반영하여 그대로 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사가랴는 두려워한 것인가 무서워한 것인가? 사가랴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12절에 함께 쓰인 ταρασσῶ의 의미는 급격한 혼란과 당혹감을 담고 있다.⁸⁾ 게다가 신약에서 이 동사는 ‘무서워

7) 참고로 동사형 φοβέομαι의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마 18번, 막 10번, 눅 18번, 행 11번, 요 3번 그 외 10. 총 70번 중 누가복음-사도행전에 29. 명사와 동사를 합친 수는 다음과 같다: 마 21번, 막 11번, 눅 25번, 요 6번.

8) BDAG는 이 동사의 수동태가 ‘be troubled, frightened, terrified’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설명하

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마 14:26 [병행구절 막 6:50]). 또한 그때 사가라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경외심보다는 간이 떨어질 만큼 놀라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⁹⁾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사가라의 12절의 반응은 두려움보다는 무서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성경은 거의 모두 명사 'fear'를 사용하면서 동사와 함께 묶어서 'fear fell upon him'으로 쓰거나 'was seized(gripped) with fear'로 번역한다. 이것은 이 부분의 헬라이어 구문을 볼 때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영어 단어 'fear'는 경외심을 함께 담을 수도 있으나 무서움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¹⁰⁾ 보다 분명하게 '외경심'이란 뜻을 전달하고자 했다면 'awe'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이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무서움'의 감정이 더 압도적이라고 번역자들이 생각했음을 보여준다.¹¹⁾

결론적으로 12절에서 이 명사는 '두려움'보다는 '무서움'을 표현해 주며 따라서 『표준』, 『새번역』, 『공동』, 『공동개정』처럼, '두려움'이란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두려워하다'도 '무서워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는 있으나, 이 광경에서 보다 분명하게 '무서움', '공포'로 쓰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개역』과 『개역개정』의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적절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¹²⁾

면서 본 구절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 동사의 수동태가 마가복음 6:50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보인 반응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겁에 질린 모습을 표현해 준다. 또한 누가복음 24:38에서도 사용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어리둥절하여 겁에 질린 모습을 그려준다. 따라서 사가라는 천사의 등장에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랐음을 알 수 있다.

- 9) 마샬(I. H. Marshall)은 이 구절에서 이 동사가 분명하게 'to terrify'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I. H. Marshall,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78), 55.
- 10) 언뜻 보면 'fear'는 우리말로 '공포'에 가깝다. 하지만 Merriam Webster 사전에 따르면 이 동사는 to have a reverential awe of <fear God> (...에 대해서 공경하는 두려움을 갖는 것<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용법으로도 사용된다. 이 사전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
- 11) NRSV는 앞의 동사 곧 *ταράσσω*의 과거 수동태를 'was terrified'로 번역하여 이 부분에서 사가라가 느끼는 감정이 '공포'에 가까운 것임을 표현해 준다.
- 12) 누가복음 1:30에서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두려워 말라'고 말한다. 『개역』과 『개역개정』은 '무서워 말라'로 나머지는 '두려워 말라'로 번역한다. 이 때 KJV를 제외한 영어 성경은 모두 'do not be afraid'로 옮겨 놓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12에 무서워/두려워했다고 묘사된 사가라의 경우와는 달리 마리아가 무서워/두려워했다는 직접적 표현은 없다. 그저 단순히 29절에서 동사 *διαταράσσω*를 사용하여 그런 뉘앙스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는 하는데 이 동사는 '(대단히) 당혹스러워하다', '혼동스러워하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신약에서 '무서워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12절에 사용된 같은 어원의 동사 *ταράσσω*와는 달리 그

2.2. 사가랴의 입 열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눅 1:65)

1장 65절에서도 요한의 출생 후 사가랴의 입이 열리자, 사람들에게 ‘두려움/무서움’(φόβος)이 생긴다:

Καὶ ἐγένετο ἐπὶ πάντας φόβος τοὺς περιοικοῦντας αὐτούς, καὶ ἐν ὅλῃ τῇ ὄρεινῃ τῆς Ἰουδαίας διελαλεῖτο πάντα τὰ ῥήματα ταῦτα.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개역개정』)

『개역』과 『개역개정』, 그리고 『표준』과 『새번역』은 모두 ‘두려워했다’로 번역하는 반면에 『공동』, 『공동개정』은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로 번역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구절에서 많은 영어 성경은 φόβος를 ‘fear’로 번역하지만 NIV, NJB, NLT 등은 ‘awe’로 번역한다.¹³⁾ 이것은 사가랴의 천사 방문의 경우와는 달리 이 부분에서 무언가 ‘경외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 영어 성경의 번역자들이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사가랴가 병어리로 있다가 요한의 작명 때에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공포와 무서움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58절의 사람들의 반응이 즐거워하는 것이었음을 함께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기적적인 요한의 잉태와 사가랴의 말문 막힘, 그리고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입 열림의 사건은 유대인이었던 사가랴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보다는 무언가 경이로움과 기대를 갖게 해주는 것이었으리라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경건하여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주변의 사람들도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¹⁴⁾ 그래서 이 명사는 이 구절에서 ‘두려

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서, 그 속에 두려움/무서움의 감정이 있는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1:12처럼 문맥이 분명하게 그런 감정을 가졌으리라는 것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 13) 앞서 설명한 대로 ‘fear’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영어 성경들이 φόβος를 위의 두 구절에서 ‘fear’로 번역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으며, 한글 성경도 비슷한 개념으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65절에서 ‘fear’를 쓴 이유는 그 속에 ‘경외심’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외심을 분명히 표현하고자 한다면 ‘awe’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4)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일어난 경이로운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공포’라기보다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마샬은 이 감정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경외심’(numinous awe)으로 표현한다. I. H. Marshall, *The Gospel of Luke*, 89.

움’, ‘경이로움’, ‘경외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공동』, 『공동개정』의 번역은 올바르게 고쳐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¹⁵⁾ 또한 다른 한글 성경들도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3. 천사의 출현에 대한 목자들의 반응(눅 2:9)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9는 이렇게 적고 있다:

καὶ ἄγγελος κυρίου ἐπέστη αὐτοῖς καὶ δόξα κυρίου περιέλαμψεν αὐτούς,
καὶ ἐφοβήθησαν φόβον μέγαν.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개역개정』)

이 구절에서 목자들은 무서워/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싸고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목자들의 반응을 번역하면서 『개역』과 『개역개정』은 ‘무서워하다’로, 『표준』과 『새번역』은 ‘두려워하다’로, 『공동』과 『공동개정』은 ‘겁에 질려 떨어다’로 번역한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함께 쓰인 동사와 형용사다: ἐφοβήθησαν φόβον μέγαν.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동사(φοβέω)와 명사(φόβος)를 함께 사용하고 거기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μέγα)를 쓰고 있는 이 표현은 공포를 강조해 주며 따라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해 볼 수 있다.¹⁶⁾ 따라서 목자들은 아주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어두운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에 대한 반응으로는 두려움보다는 무서움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 『공동개정』이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한다고 판단해 볼 수 있으며, 『개역』과 『개역개정』도 무난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표준』과 『새번역』의 ‘두려워하다’는 의미가 약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사실 영어 성경은 이런 극단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양하게 번역한다: ‘were terribly

15) 흥미롭게도 『공동』, 『공동개정』은 1:30의 마리아에게 하는 천사의 명령을 ‘두려워 말라’로 번역한 반면에 이 부분에서는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로 이해한다. 객관적인 상황을 따지자면 처녀였던 마리아가 홀로 천사를 맞이했을 때 놀람과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 곳에서 ‘두려워 말라’로 번역한 후에 이 곳에서는 ‘겁을 집어먹었다’로 번역하는 것은 이치에 맞아 보이지 않는다.

16) D. L. Bock, *Luke 1:1-9:50* (Grand Rapids: Baker, 1994), 215.

frightened’ (NAS, NAU), ‘were terrified’ (NIV), ‘were greatly afraid’ (NKJV), ‘were sore afraid’ (KJV), ‘were frightened’ (CEV), ‘filled with fear’ (ESV).¹⁷⁾

이와 관련하여 10절도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 구절에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무서워/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개역』과 『개역개정』은 ‘무서워말라’로 언급하는 반면에 다른 한글 성경들은 모두 ‘두려워 말라’로 번역한다. 특별히 『공동』, 『공동개정』이 9절에서는 ‘겁에 질려 떨다’로 번역하고 10절에서는 왜 ‘두려워하다’로 번역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9절의 번역이 문맥에 맞으므로 10절에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 또는 ‘겁내지 말라/겁에 질려 떨지 말라’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명령법을 번역하면서 ‘do not be afraid’를 사용한다. 그런데 ESV는 이 명령법을 ‘Fear not’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ESV의 전신인 RSV의 번역(‘Be not afraid’)과도 다른 것이며, 또한 ESV가 오직 이곳과 분명히 ‘무서워 말라/공포에 떨지 말라’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누가복음 12:7과 32절에서만 이 표현을 사용하기에 설명이 필요하다.¹⁸⁾ 가능한 설명은 9절에서 ἐφοβήθησαν φόβον μέγαν를 ‘filled with fear’로 번역한 후에 이것의 영향으로 ‘fear not’을 썼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헬라어 명사 φόβος가 등장하며 이것을 ESV가 ‘fear’로 번역하기에 이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결국 ESV는 이 부분에서 목자들의 무서움/두려움은 공포에 가까운 느낌으로 이해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것은 올바른 이해라 할 수 있으며, 한글 성경들 중에서 ‘두려워 말라’로 되어 있는 성경은 수정이 필요하다.

2.4. 정리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세 가지 사건, 곧 사가랴에게 행한 가브리엘의 요한 잉태 고지, 사가랴의 말문 트임,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 이 세 사건의 상황은 무서워/두려워할 만한 것이었고, 그런 반응은 타당성이 있었다. 이러한 반응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는 ‘φόβος’를 사용한다. 그

17) 이 구문을 놀란드(J. Nolland)는 ‘were deeply frightened’로 번역하여 ‘공포’의 개념을 분명하게 언급한다. J. Nolland, *Luke 1:-9:20* (Dallas: Word Books, 1989), 97.

18) RSV도 12:7, 32에서는 ‘Fear not’을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동사가 분명하게 ‘무서워하다’, ‘공포에 떨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준다: Why, even the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Fear not; you are of more value than many sparrows. (12:7); “Fear not, little flock, for it is your Father’s good pleasure to give you the kingdom.”(12:32)

런데 각 상황에서 어떤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사가랴는 천사의 등장에 굉장히 당황하여 놀라며 무서워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고, 사가랴의 주변에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말문 트임에 놀라워하면서 경외심을 가지면서 두려워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며, 목자들은 벌어진 현상에 대해 무서워할 만했다고 설명해 볼 수 있다. 결국 무서움/두려움을 느끼는 주체와 그 내용에 따라서 동일한 명사를 사용하더라도 의미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세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무서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 사건은 ‘두려움/경외심’을 강조하는 표현을 가지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 ‘경외심이 생기다’,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다’ 등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목자들의 경우에는 무서워 떠는 모습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겁에 질리다’, ‘공포에 떨다’ 혹은 어느 한글 성경처럼 ‘겁에 질려 떨다’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3. 예수님의 기적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종말 예언 속의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지상 사역 속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 속에 ‘φόβος’가 등장한다. 이 명사는 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또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담화에서도 종말에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며 이 명사를 사용하는데, 그때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가?

3.1. 중풍병자 치유 사건(눅 5:26)

예수께서 앉아 계신 집의 지붕에 네 사람이 구멍을 뚫고 중풍 걸린 사람을 그 앞에 내려놓자 예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신 후에 보여준 사람들의 반응을 누가복음 5:26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καὶ ἔκστασις ἔλαβεν ἅπαντας καὶ ἐδόξαζον τὸν θεὸν καὶ ἐπλήσθησαν φόβου λέγοντες ὅτι εἶδομεν παράδοξα σήμερον.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개역개정』)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며 심히 두려워/무서워하며 자신들이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말한다. ‘놀라운 일’은 원문에서는 복수로 παραδόξα로 되어 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으로 걸어 돌아가는 일들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단어는 70인역에는 몇 번 사용되나 신약에서는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된다.¹⁹⁾ 이 명사는 인간 이성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하고도 기이한 일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상식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일들을 가리킨다.²⁰⁾

이러한 특별한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서 백성들은 ‘φόβος’로 가득 채워진다.²¹⁾ 이 때에 ‘채워지다’를 위해 사용된 동사는 수동태로서 ‘신적 수동태’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φόβος’로 채워주셨던 것이다.²²⁾ 그런 두려움/무서움의 감정이 경이로운 일에 대한 반응이며 또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이 명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는 그 감정을 나타내는 ‘두려움’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이 구절 앞부분에 있는 명사 ‘ἔκστασις’의 사용과도 잘 어우러진다. 이 명사는 신약에서 모두 7번 사용되는데, 원래 ‘장소에서 이탈하는 것’(‘being put out of place’)을 의미하며 그래서 ‘황홀경’ 혹은 ‘공포’나 ‘놀라움’을 의미하기도 한다.²³⁾ 이것은 사도행전에 4번 쓰이는데 그 중 세 번은 ‘황홀경’(ecstasy)을 의미한다(10:10, 11:5, 22:17). 하지만 사도행전 3:10에서 당혹스러워하며 의아해서 깜짝 놀람을 뜻한다. 또한 이 단어는 마가복음 16:8에서 혼비백산하여 낮이 나간 모습을 표현해준다.²⁴⁾ 결국 누가복음

19)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5번 사용되는데 ‘믿을 수 없는’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Judith 13:13), 또는 ‘기대하지 않은’(2Ma 9:24) ‘역설적인’(paradoxical) (4Ma 2:14) ‘기묘한’(Wis 19:5) ‘이상한’(Sir 43:245)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상의 예문에서 보듯이 이 단어는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또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어떤 상태의 일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20) BDAG(763)에 따르면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Contrary to opinion or exceeding expectation, *strange, wonderful, remarkable*’.

21) 이 부분에서 『개역개정』은 부사인 ‘심히’를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두려움이 가득하다’를 의역하여 그렇게 한 듯하다.

22) 누가복음의 문장의 순서를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데서도 이런 주장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3) BDAG, 309; Liddell & Scott, *A Greek-English Dictionary*, 520.

24) 그곳에서 헬라어는 두 가지 명사를 함께 사용한다: τρόμος και ἔκστασις. 『개역』 성경은 ‘심히 놀라 떨며’라고 번역하여 이 명사의 순서를 바꾸어 놓는데 이것은 한글의 의미를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려는 시도로 읽혀진다. 이 문맥에서는 단순한 두려움/놀람보다는 정신이 빠진 듯한 낮이 빠진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무서워 떨면서 낮이 나가서’으로 번역해 볼 수 있다.

5:26에서도 깜짝 놀라 경탄해 마지않는 모습을 그려주며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심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²⁵⁾

이런 생각의 흐름을 반영하는 듯이, 한글 성경은 모두 ‘두려움’으로 번역하며, 영어 성경 중에 여러 개가 이 명사를 ‘공포’나 ‘두려움’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fear’대신에 ‘경외심’을 분명하게 강조해주는 ‘awe’로 번역한다.²⁶⁾ 다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헬라어 구문(ἐπλήσθησαν φόβου)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혹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려움으로 가득찼다는 원문의 의미를 잘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경외심으로 가득했다’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3.2. 나인성 과부의 아들 부활 사건(눅 7:16)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후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ἔλαβεν δὲ φόβος πάντας καὶ ἐδόξαζον τὸν θεὸν λέγοντες ὅτι προφήτης μέγας ἠγγέρθη ἐν ἡμῖν καὶ ὅτι ἐπεσκέψατο ὁ θεὸς τὸν λαὸν αὐτοῦ.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개역개정』)

이 구절에서도 앞의 5:26과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구절에서도 두려움은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한글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이 명사를 ‘두려움’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높이는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5:26과는 약간 다른 경향

25) 보봉(F. Bovon)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생겨났다고 표현한다. F. Bovon,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Luke 1:1-9:50*, C. M. Thomas, trans. (Minneapolis: Fortress, 2002), 184. 피츠마이어(J. A. Fitzmyer)는 앞서 다룬 누가복음 1, 2장의 구절에서는 φόβος 명사를 ‘fear’로 번역하는 반면에 이 구절과 앞으로 본 논문이 다룬 7장 16절에서는 ‘awe’로 번역한다. J.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New York; London; Toronto: Doubleday, 1970), 586, 659.

26) RSV, NRSV, ESV, NIV, NJB, NLT. 흥미롭게도 현대적 번역을 추구하는 NJB, NLT가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filled with awe. 또한 다른 부분에서 이 명사를 ‘fear’로 번역하고 있는 벡(D. L. Bock)도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이 단어를 ‘awe’로 번역한다. D. L. Bock, *Luke 1:1-9:50*, 487.

이 이 구절의 영어 성경 번역에서 나타난다. 앞의 5장의 예에서 φόβος를 ‘awe’로 번역했던 성경들 중 몇 개는 이 구절에서 이 명사를 ‘fear’로 번역한다(RSV, ESV, NRSV, NLT). 이것은 단순히 문체의 다양성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이 문맥에서 이 명사의 의미에 대한 번역자의 해석을 반영해 준다. 5장에서 ‘awe’를 선택하여 단순한 무서움보다는 ‘경외심’을 강조하고자 했을 수 있고 그와는 다르게 7장에서는 ‘fear’를 사용하여 경외심보다는 무서움을 더 많이 표현하려 했을 수도 있다.

사실 백성들이 놀란 이유는 기적의 사건들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두 부분에서 모두 ‘경외심’, ‘두려움’으로 번역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5장의 사건과 7장의 사건 사이의 무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²⁷⁾ 5장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7장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둘 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들게 하는 사건들임에는 틀림없으나, 무서움/두려움의 강도는 7장이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5장에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7장에서는 장례를 위해 왔다 우연히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죽은 사람을 살린 7장의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무서움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7:16에서 이 명사를 ‘무서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쓰인 헬라이어 동사를 고려하여 ‘겁을 먹었다’, ‘무서워했다’로 번역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⁸⁾

3.3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눅 8:37)

27) 이것이 아마도 CEV가 5:26과 7:16을 번역하면서 이 명사에 대해 아주 다르게 이해한 이유일 것이다. 두 구절의 CEV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veryone was amazed and praised God. What they saw surprised them, and they said, “We have seen a great miracle today!” (5:26)

Everyone was frightened and praised God. They said, “A great prophet is here with us! God has come to his people.” (7:16)

5장의 경우에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하는데, 명사 φόβος를 ‘surprise’ (놀라다: 그들을 놀라게 했다)를 써서 그 의미를 전달한다. 그 반면에 7장에서는 ‘frighten’의 수동을 써서 ‘겁먹다’라는 의미로 번역한다. 5장은 놀람이 강조되는 반면에 7장은 겁먹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28) ‘무서워하다’에 해당하는 동사의 시제는 과거이며, ‘영광을 돌리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 과거다. 따라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버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로 번역하면 무난하다고 볼 수 있다.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많은 귀신이 들려 있던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그 근처 지역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 8:37에 설명되어 있다:

καὶ ἠρώτησεν αὐτὸν ἅπαν τὸ πλῆθος τῆς περιχώρου τῶν Γερασηνῶν ἀπελθεῖν ἀπ’ αὐτῶν, ὅτι φόβῳ μεγάλῳ συνέιχοντο· αὐτὸς δὲ ἐμβὰς εἰς πλοῖον ὑπέστρεψεν.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개역개정』)

한글 성경 중에서 『개역』, 『개역개정』, 『표준』, 『새번역』은 φόβῳ μεγάλῳ συνέιχοντο를 ‘크게 두려워했다’로 이해한다. 반면에 『공동』, 『공동개정』은 ‘몹시 겁을 집어먹었다’로 번역하여 공포심을 더 강조해 준다. 어느 것이 더 적절한 것일까? 이 문맥에서 그 인근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훨씬 강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이적 기사는 앞의 이적 기사와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다.²⁹⁾ 그리고 이방 지역에 살던 이방 사람들과 관련하여 일어난 이적 사건이다. 또한 이 구절에 기록된 이적에 대한 반응은 유대인과 예수님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던 이방인들의 반응이다. 앞의 두 사건에서는 유대교와 구약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알던 유대인들의 기적에 대한 반응이었던 반면에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반응을 말해준다.³⁰⁾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여기서 사용된 동사 συνέχω의 의미다. 이 동사는 아주 강한 의미를 전달하여, ‘심하게 누르다’(press hard) 혹은 ‘고통스럽게 하다’(distress)라는 뜻으로 사용된다.³¹⁾ 형용사 μέγα와 함께 쓰여서 엄청난

29) 이 지역이 어디였는가 하는 것은 큰 연구 과제다. 우선 사본학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누가복음처럼 ‘거라사’인지 마태복음처럼 ‘가다라’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지역이 갈릴리 맞은편 지역 이방인들의 영토였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M. Wolter, *Das Lukas-evangelium* (Tuebingen: Mohr Siebeck, 2008), 317을 보라.

30) 스타인(R. H. Stein)은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가졌던 무서움/두려움은 단순히 무시무시한 공포에 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R. H. Stein, *Luke* (Nashville: Broadman, 1992), 258.

31) BDAG, 970-971. 이 단어에 대해 BDAG는 ‘hard press’라는 뜻을 제시하면서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다: ‘to press in and around so as to leave little room for movement.’ 또한 ‘distress, torment’라는 뜻을 제시하면서 ‘to cause distress by force of circumstance’라는 표현을 쓴다. 이것은 굉장히 압박을 받고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그려준다.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겁에 질린 모습을 그려준다. 그래서 φόβω μεγάλῳ συνείχοντο를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 ‘무서움(공포)/두려움에 심하게 짓눌려 있었다.’ 이 부분의 해석에서 독일어 성경 중 하나인 EIN은 흥미롭게도 ‘Angst’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공포’를 강조하는데 이 단어를 φόβος가 등장하는 다른 부분에서 거의 모든 독일어 성경이 사용하지 않는다.³²⁾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무서워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모든 영어 성경도 예외 없이 이 명사를 ‘fear’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역』과 『개역개정』, 『표준』과 『새번역』의 이 명사에 대한 이 구절의 번역은 공포나 겁에 질린 모습을 보다 분명하게 묘사하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겁에 질리다’, ‘크게 공포심을 느끼다’ 혹은 ‘대단히 겁을 먹다’로 번역할 것을 제안해 본다.

3.4 종말에 대한 예언(눅 21:26)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

ἀποψυχόντων ἀνθρώπων ἀπὸ φόβου καὶ προσδοκίας τῶν ἐπερχομένων τῆ οἰκουμένη, αἱ γὰρ δυνάμεις τῶν οὐρανῶν σαλευθήσονται.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개역개정』)

이 부분에서 명사 φόβος의 의미는 아주 분명하다. 사람들이 장차 닥칠 일을 생각하면서 공포에 질려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모습을 그려준다.³³⁾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경외심이나 외경심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모두 ‘무서워하다’나 ‘공포에 떨다’로 번역하며, 영어 성경도 거의 모두 ‘fear’로 번역하고 NIV는 아예 ‘terror’로 번역해 버린다. 이러한 번역은 아주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32) 대신 거의 대부분 ‘Furcht’로 번역하여 두려움/경외를 표현한다. 참고로 EIN은 1980년에 출간된 독일어 성경 Einheitsubersetzung의 약자이다.

33) 캐롤(J. T. Carroll)은 이 구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고통 받으며 시달릴 것이라고 말해준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 때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명령하고 계심을 언급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이 명사는 분명하게 ‘공포’를 표현해 준다. J. T. Carroll, *Luk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2), 420.

3.5 정리

예수님의 기적 사역에 대한 반응에서도 그 사건의 성격과 반응하는 사람들의 종류에 따라서 φόβος는 차별적 의미를 전달한다. 이방인들은 기적에 대해서 ‘공포’의 감정을 느낀다. 그 반면에 유대인들은 경외심을 포함한 무서움을 표현한다. 다만 이 때도 상황에 따라 그리고 대상에 따라 어느 한쪽이 강조되기도 한다. 마지막 구절의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에서 ‘불신자’들은 장차 닥칠 환란을 생각하며 반응하는데 이 때 온전히 ‘공포심’을 드러낸다.

4.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φόβος의 이해

누가복음에서 무서움/두려움을 나타내는 φόβος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이 보여준 반응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리고 한번은 종말에 닥칠 재앙에 대한 불신자의 반응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에 의해 행해진 일들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 이 명사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각 문맥에서 이 명사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

4.1. 사도들의 많은 기사와 표적(행 2:43)

사도행전 2:43에 이 명사가 사용되는데 이 구절의 헬라어 구문은 흥미롭다:

ἐγένετο δὲ πάση ψυχῇ φόβος, πολλά τε τέρατα καὶ σημεῖα διὰ τῶν ἀποστόλων ἐγένετο.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개역개정』)

앞부분과 뒷부분이 접속사 ‘τε’로 연결되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φόβος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한글 성경은 모두 ‘두려워하다’로 이해하며,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경외심’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awe’로 번역한다. KJV과 NKJV, RSV만이 이것을 ‘fear’로 언급하지만, 이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 세 성경은 이 명사를 거의 기계적으로 ‘fear’로 번역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RSV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서로 다른 성향을 나타내는 두 번역본, NRSV와 ESV는 의견을 같이하여 ‘awe’를 사용한다. 이것은 이 부분에서 ‘awe’가 더 바람직함을 입증해준다.³⁴⁾ 여기서 ‘사람마다’로 번역된 단어는 이 맥락에서 믿는 사람들보다는 초대교회 밖에 있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³⁵⁾ 이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는 ‘두려움/경외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의 앞뒤 부분의 논리적 연결은 접속사 ‘τε’와 관련하여 애매하다. 이 접속사는 앞뒤 문장을 단순히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그리고’, ‘그와 같이’ 등의 의미를 전달한다.³⁶⁾ 사도들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기에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적의 행함과 사람들의 무서움은 인과 관계 없이 별개였는지 문장 구성상 애매하다. 문법상으로는 후자로 보아야 하지만 논지의 흐름상으로는 전자가 더 적합해 보인다. 이것이 아마도 어떤 사본들에서 43절의 뒤에 φόβος를 다시 한 번 집어 넣은 이유일 것이다.³⁷⁾ 그래서 다양한 번역이 제시된다. NRSV는 앞뒤 문장을 because로 연결하며 여러 영어 역본들은 세미콜론이나 콜론을 넣어서 앞뒤 문장을 연결한다.³⁸⁾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어떻든 두려워하는 상태와 기적과 표적의 행함은 서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사도들이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는 것과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진 것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맥에서는 경외심을 포함하고 있는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다.

34) 그런데 독일어 성경 중 MNT가 ‘Angst’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는 공포와 무서움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왜 이 단어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35) D. L. Bock, *Acts* (Grand Rapids: Baker, 2007), 151.

36) BDAG, 993.

37) 이 부분에서 많은 믿을 만한 사본들(Ⓟ 47, Ⓝ, A, C, Y, 326, 1175)이 43절 뒤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첨가하였다: ἐν Ἱηρουσαλήμ, φόβος τε ἦν μέγας ἐπὶ πάντας.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문장의 논리적 연결은 완전히 보인다.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더 자연스러운 독법이기에는 이것이 원문일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독법은 이 구절의 의미의 불명료성에 대한 사본 필사자들의 고민을 드러내 준다. 이 구절의 독법과 관련해서는 B.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2001), 262를 보라.

38) NAS, NAU, NJB, RSV는 세미콜론을 사용하며, 독일어 성경 중 EIN도 세미콜론을 쓴다. 반면에 영어 성경, GNV, KJV, 그리고 독일어 성경 Zuruecher Bibel은 콜론을 쓰고 있다.

4.2.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행 5:5, 11)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숨겨두고 짐짓 모두 바친 척하여 죽음이라는 징벌을 받은 후에 나타난 결과를 5:5와 11절은 이렇게 기록한다.³⁹⁾

ἀκούων δὲ ὁ Ἀνανίας τοὺς λόγους τούτους πεσὼν ἐξέψυξεν, καὶ ἐγένετο φόβος μέγας ἐπὶ πάντας τοὺς ἀκούοντας.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개역개정』 5:5)

καὶ ἐγένετο φόβος μέγας ἐφ’ ὅλην τὴν ἐκκλησίαν καὶ ἐπὶ πάντας τοὺς ἀκούοντας ταῦτα.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개역개정』 5:11)

이 두 구절에서 이 명사의 의미는 ‘두려움’인가 ‘무서움’인가? 모든 한글 성경은 이 명사를 ‘두려움’으로 이해하여 이렇게 번역한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러한 번역은 타당한 것일까? 사실 너무도 충격적이게도 부부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간차를 두고 한 날에 죽어버렸다. 베드로의 추상같은 호령 한 마디에 그들은 숨을 거두어 버린다. 이런 장면은 ‘두려움’보다는 ‘무서움/공포’를 표현해 주지 않을까?

우선 이런 두려움이 누구에게 생긴 것인지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5절에서는 단순히 ‘이 일을 듣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애매하나, 11절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을 구분한다. 11절이 이 사건에 대한 종합적 반응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11절에서 청중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청중에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⁰⁾ 그렇다면 불신자까지 포함하여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적합한 것은 ‘공포’에 가까운 ‘무서움’이 아니었을까? 영어 성경은 거의 모두 ‘fear’로 번역하며 NLT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역하여 ‘was terrified’로 번역한다. ‘무서움’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⁴¹⁾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죽어

39)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의 벌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된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S. J.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Baker, 1990), 183-184를 보라.

40) D. G.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Eerdmans, 2009), 211. 그는 5절에서도 ‘듣는 사람들’ 속에 교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글 성경의 ‘두려워하다’도 수용할 만하지만 동시에 ‘무서워하다’, ‘겁을 내다/떡다’로 번역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설명해 볼 수 있다.⁴²⁾

4.3 복음의 용성에 대한 설명(행 9:31)

9:31은 그 당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모습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묘사한다:

Ἡ μὲν οὖν ἐκκλησία καθ’ ὅλης τῆς Ἰουδαίας καὶ Γαλιλαίας καὶ Σαμαρείας εἶχεν εἰρήνην οἰκοδομουμένη καὶ πορευομένη τῷ φόβῳ τοῦ κυρίου καὶ τῇ παρακλήσει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ἐπληθύνετο.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개역개정』)

아주 흥미롭게도 오직 이곳에서만 『개역』과 『개역개정』은 헬라어 명사 φόβος를 ‘경외’로 번역한다. 이 한글 명사가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반면에 나머지 한글 성경들은 ‘두려움’으로 이해한다: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며.’ 이러한 『개역개정』의 번역은 타당한 것인가? 이 구절의 문맥 속에서 이 번역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주님을 경외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구문, τῷ φόβῳ τοῦ κυρίου는 구약 헬라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구약과 다른 것은 이 구절에서는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것이다.⁴³⁾ 어쨌든 이 때의 두려움은 공포/무서움

41) 바렛(C. K. Barratt)은 이렇게 표현한다: ‘in this verse, φόβος must be more than reverence’. C. K. Barratt,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14-28* (London; New York: T. & T. Clark, 1994), 270.

42)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무서워/두려워했는지 적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스펜서(F. S. Spencer)는 그 무서움/두려움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자, 베드로’,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죽음’, ‘수치/불명예’. 그는 이 두려움이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늘 각성하게 하는 역할을 했음을 강조한다. F. S. Spencer, “Scared to Death”, S. Walton, et al., *Reading Acts Today: Essays in Honour of Loveday C. A. Alexander*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11), 63-80을 보라.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이 대상이라면, ‘경외심을 가지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로 번역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3) 바렛은 이 헬라어 명사를 아주 잘 정의한 독일 학자 롤로프(J. Roloff)의 표현을 소개한다: ‘Das Sich-Unterstellen unter die richtende Macht Gottes’(올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자아-내려놓기. 곧 공의로운 눈으로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고 겸손히 떨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J. Roloff, *Acts 1-14*, 474.

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경외의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행동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을 믿어 아는 사람들로써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체험했고 따라서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경외심/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명사와 함께 쓰인 또 다른 명사 παρακλήσις의 의미가 무엇이나에 따라 약간의 의미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만일 이 명사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들처럼 ‘위로’(comfort)로 번역한다면 ‘주님을 두려워함/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강조된다. 그래서 뒤에 성령의 위로를 넣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뒤의 명사를 성령의 ‘훈계/권고’(exhortation)로 번역한다면 앞의 명사는 주님을 ‘무서워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포나 떨림 가운데 무서워하며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훈계를 통해 교회가 성장해 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앞의 것을 ‘공포/무서움’으로 번역하여 ‘주님을 무서워함과 성령님의 훈계로’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하지만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교회를 돌보시는 분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여전히 ‘무서움’보다는 ‘두려움/경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함/경외함과 성령의 훈계’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럴 때 교회 성장의 열쇠는 예수님/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두려움/경외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훈계/권고가 되어, 무엇보다도 교회 성도의 신앙의 기본자세를 보여 준다.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성령의 훈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는 성장해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φόβος 명사는 공경심을 포함한 무서움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이 구절에서 경외심을 가진 마음 자세를 나타낸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개역개정』의 번역 ‘경외함’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만 이 단어를 ‘경외(함)’로 번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⁴⁵⁾ 이렇게 보자면 앞서 지적한 대로 누가복음의 몇 가지 예에서도 ‘경외’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또한 『개역개정』은 φόβος 명사를

44) ‘주님을 무서워함’에 해당하는 헬라이어 구문을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보자면 ‘주님의 무서움’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두려움을 주시는 주체가 되신다. 무서움/두려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훈계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되신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45) 어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도행전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이것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경외’라는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다’가 ‘경외하다’를 표현할 수 있기에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사도행전에서 언제나 ‘두려움’으로 번역한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경외함’으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차라리 ‘주님을 두려워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경외’의 개념을 살려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다른 부분에서도 ‘경외심이 생기다’, ‘경외하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다’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4.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 사건(행 19:17)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따라하던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악귀들린 사람에게 제압당하고 상처를 입고 별거벗고 도망친 사건이 있던 후의 사람들의 반응을 19:17은 이렇게 그리고 있다:

τοῦτο δὲ ἐγένετο γνωστὸν πᾶσιν Ἰουδαίοις τε καὶ Ἕλλησιν τοῖς κατοικοῦσιν τὴν Ἔφεσον καὶ ἐπέπεσεν φόβος ἐπὶ πάντας αὐτοὺς καὶ ἐμεγαλύνετο τὸ ὄνομα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개역개정』)

이 구절의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감정은 우선은 ‘무서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fear’로 이해하여 제시한다. 하지만, 이 때에 단순히 ‘공포’만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 ‘경외심’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해 볼 수 있다. 이것이 한글 성경이 모두 ‘두려워하다’로 번역한 이유일 것이며, 또한 어떤 영어 성경이 ‘was awestruck’ (NRSV) 또는 ‘was filled with awe’ (NJB)로 번역한 근거일 것이다. 이것은 이 부분에서 보기에 따라 ‘경외심’이 표현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이 구절의 후반부의 표현 곧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와 그 후의 사람들의 반응, 곧 믿고 회개하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수많은 값비싼 마술 책을 태워버리는 행동(18-19절)을 고려해 볼 때에 사람들의 감정이 ‘공포’보다는 놀라움을 포함하고 있는 ‘경외심’에 가까웠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글 성경의 ‘두려워하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5. 정리

사도행전에서 φόβος는 기독교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성장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이 때에 무서움/두려움이 생기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불신자였으나 기독교에 호의적인 사람들이었다. 약간의 예외가 있으나 불신자만 대상인 경우는 없었다. 이 사람들에게 φόβος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을 포함하는 두려움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런 φόβος의 감정을 갖도록 능력을 행하는 역할이 예수님에서 사도들로 넘어간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넘겨받아 놀라운 일을 행하며 그 사역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경우처럼 φόβος가 나타난다. 이 때 ‘공포’, ‘무서움’의 개념이 때때로 분명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체로 ‘경외’, ‘두려움’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외심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며 성장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누가복음-사도행전에 사용되는 φόβος의 의미를 추적해 보았다. 그러면서 한글 성경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올바르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렇게 의미를 결정함에 있어 문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주위의 문법적 장치들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을 밝혀보았다. 결국 이 명사가 서로 다른 뉘앙스를 전달하는 두 개의 뜻 - 공포/무서움과 두려움/경외 - 으로 사용되기 에 이 둘 가운데 어떤 의미가 주어진 본문 속에서 강하게 표현되는지를 밝혀 내야 비로소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번역에 이를 수 있게 된다. 한글 성경 가운데 어떤 역본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고, 그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두려움’이 ‘무서움’의 뜻을 부분적으로 전달하기는 하지만 보다 분명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두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어려워/무서워하면서도 공경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경외’나 ‘외경심’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세대를 배려해주는 번역이 필요한 동시에 그들을 위한 교육 차원의 번역이 또한 요청된다. 아울러 어느 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날 때 과감히 한 쪽의 번역을 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두 측면 모두를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문맥에 따라 ‘경외’나 ‘공포’라

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최소한 각주나 난하주로 처리하여 그런 의미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φόβος가 하나님과 교회/인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사항들을 참조하여 향후 신약의 본문에 대한 토론과 번역에 대한 제안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의 70인역에서의 용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성경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를 표현하는 단어인 ‘φόβος’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토론과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이 명사의 이해와 번역에 대한 제안과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명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것에 근거하여 엄밀하고도 일관성 있는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φόβος의 번역, 경외, 두려움, 누가복음, 사도행전.

Translation of φόβος, Awe, Fear, Luke, Acts.

(투고 일자: 2014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14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8월 22일)

<참고문헌>(References)

- Barratt, C. K.,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14-28*, London; New York: T. & T. Clark, 1994.
- Bauer, W.,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Danker, F. W., rev. and ed.,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0.
- Bock, D. L., *Luke 1:1-9:50*, Grand Rapids: Baker, 1994.
- Bock, D. L., *Acts*, Grand Rapids: Baker, 2007.
- Bovon, F.,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Luke 1:1-9:50*, C. M. Thomas, trans., Minneapolis: Fortress, 2002.
- Carroll, J. T., *Luk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2.
- Fitzmyer, J.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New York; London; Toronto: Doubleday, 1970.
- Kistemaker, S. J., *Exposition of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Baker, 1990.
- Liddell, H. G. and Scott, R.,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1843; 9th 1958.
- Marshall, I. H.,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78.
- Metzger, B.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2001.
- Nolland, J., *Luke 1:1-9:20*, Dallas: Word Books, 1989.
- Peterson, D. G.,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Eerdmans, 2009.
- Spencer, F. S., "Scared to Death", Walton, S., et. al, eds., *Reading Acts Today: Essays in Honour of Loveday C. A. Alexander*,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11, 63-80.
- Stein, R. H., *Luke*, Nashville: Broadman, 1992.
- Wolter, M., *Das Lukas-evangelium*, Tuebingen: Mohr Siebeck, 2008.

<Abstract>

Understanding and Translation of the Noun φόβος in Luke-Acts

Chang Wook Jung
(Chongshin University)

The Greek noun φόβος which often occurs in the Greek New Testament signifies various meanings: terror, fear, awe, reverence, and respect. Broadly speaking, it delivers two denotations, i.e., ‘fear/terror’ and ‘awe/reverence’. The distinction between ‘fear’ and ‘awe’ is sometimes complicated as the two words share an overlapping signification. The latter, however, distinguishes itself from the former as it contains the implication for ‘reverence’ more than the former. If so, how is the Greek noun to be interpreted in given texts? Especially, do Korean Bible versions translate it precisely and appropriately?

In order to determine if Korean Bible translations properly understand and accurately render the noun, this study investigates its usage in Luke-Acts where it occurs most frequently in the New Testament. This also provides a chance to look at the usage of the noun in two different environments - Jesus’s earthly life and the church in his post-resurrection era. We may observe the continuous flow of the concept ‘φόβος’ and/or its different aspect between Luke and Acts. Evidently, the contex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ciding which aspect the noun betrays more strongly in a given text. Clarifying the context requires a careful examination of some grammatical ingredients. This study undertakes such research.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rendering of the noun needs to be altered in some given texts of Korean Bible versions. In some instances, the ‘terrifying aspect’ of the noun should be appropriately expressed, whereas its ‘reverential attitude’ has to be described in other instances.